



2016년 일본 니가타시 ‘하바다케21’ 국제교류 참가 결과보고서



2016. 8.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2016년 일본 니가타시 ‘하바다케21’ 국제교류 참가 결과보고서

I 목적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학생들의 만남과 친교활동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우호증진을 꾀함

II 기간

2016. 8. 21 ~ 8. 27(6박 7일)

III 장소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묘오코 국립 청소년수련원, 오히타 소년센터 등)

IV 참가자

인솔교사 2명 및 초등학생 6명 총 8명

학교명	성명	성별	학년(직위)	비고
우정초등학교		남	6	
온양초등학교		남	6	
격동초등학교		남	5	
울산초등학교		여	5	
삼신초등학교		여	5	
옥동초등학교		여	4	
울산남부초등학교		여	교사	통역 및 학생관리
무룡초등학교		남	교사	단장

V '하바다케 21' 개요

1. '하바다케 21' 의 뜻

-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의미하는'하바다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21세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친선활동을 통해'미래에 대한 꿈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정신' 등을 길러주고자 니가타시의 개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1993년 시작하여 2016년까지 24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2. 참가국(도시)별 참가 현황

- 4개국 5개도시 학생 및 인솔자 참가(인솔자 8명, 초등학생 48명 총 56명)

국가명	참가 도시명	참가자 현황						
		인솔자			학생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한국	울산	1	1	2	3	3	6	8
중국	서안	1	1	2	3	3	6	8
중국	하얼빈	1	1	2	3	3	6	8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0	2	2	3	3	6	8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0	2	2	3	3	6	8
일본	니가타	0	0	0	12	12	24	24
합 계		3	7	10	23	25	54	64

* 일본은 개인별 참가

3. '하바다케 21' 프로그램 운영 방법

- 운영자는 하바다케 21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이며 사회인 자원 봉사자(30명)와 대학생 자원봉사자(35명)을 활용하여 운영함
- 전체적인 진행은 임원이나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분담하여 준비하고 진행함. 예를 들면 환영회, 장기자랑, 참가자의 도시 소개, 송별회, 시내관광 등의 행사는 임원진에서 진행함
- 운동회, 캠프파이어, 일본문화체험(다도, 서예, 부채만들기), 야외에서 밥짓

기, 공장견학, 홈스테이 등은 청년회, 부녀회, 전직 하바다케 임원, 노인회, 공장 직원, 일본 가정 등이 분담하여 운영

- 외국 학생들을 도시별로 각 1명씩 뽑고 일본 학생들을 추가 구성하여 5~6명씩 10개 팀을 조직한 뒤, 팀별로 대학생 2명을 팀리더로 배정하여 학생 보호, 그룹활동 지도 등 생활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7일 동안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역할을 수행함(첫날은 도시별 인솔자가 숙식을 같이 하며 학생 관리함/남여별)

4. '하바다케 21' 프로그램

날 짜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8/21 (일)	12:23 ~ 15:41	울산 - 인천공항(KTX)	안전지도
	18:35 ~ 20:10	인천 - 일본 니가타 공항	KE763
	~ 21:00	오하타 소년센터 숙박시설 도착 후 방 배정 및 휴식	임원진 개인차량
8/22 (월)	~ 08:45	니가타역 집합	단체버스
	11:00 ~ 11:30	환영행사 및 오리엔테이션(미팅룸), 그룹배정	묘코 자연의집
	12:00 ~ 13:00	중식	
	13:00 ~ 16:30	그룹 응원 티셔츠 만들기, 하바다케 운동회(체육관)	
	17:20 ~ 18:30	석식	
	18:30 ~ 20:30	국가별 장기자랑, 캔들 파이어(체육관)	
	20:30 ~ 21:30	입욕 시간(대중탕)	
	21:30 ~	취침	
8/23 (화)	06:30 ~ 07:00	기상, 세면, 방청소	
	07:00 ~ 07:15	아침 집회	
	07:15 ~ 08:30	조식	
	08:30 ~ 10:30	각국 도시 소개 및 퀴즈 시간	
	10:30 ~ 15:00	야회에서 밥 짓기(재료 준비 및 손질, 뒷정리 포함)	
	15:00 ~ 17:30	각 그룹 구호 만들기, 자유시간	
	17:30 ~ 18:30	석식	
	18:30 ~ 20:30	전체 관측(우천시 실내 전체 사진 감상)	
	20:30 ~ 21:30	입욕 시간(대중탕)	
	21:30 ~	취침	
8/24 (수)	06:00 ~ 07:00	기상, 세면, 방청소	니가타시
	07:00 ~ 07:15	아침 집회(체조)	
	07:15 ~ 08:30	조식	
	09:00 ~ 11:30	묘코 마을 출발-다이니치 공장으로 이동	
	11:30 ~ 14:30	중식 및 다이니치 공장 견학	
	15:30 ~	홈스테이 인계	
8/25 (목)	~ 15:30	홈스테이 후 오하타 소년센터 집합, 오리엔테이션	개별 이동
	~ 17:00	자유시간	오하타 소년센터
	17:00~20:30	하바다케 축제(다도, 서예, 부채 만들기, 석식)	
	20:30 ~ 21:30	입욕 시간(샤워 시설)	
	21:30 ~	취침	
8/26 (금)	06:00 ~ 07:00	기상, 세면, 방청소	단체버스 이동
	07:00 ~ 08:00	조식	
	08:30 ~ 09:00	오하타 출발-니가타일본 미디어숍 이동	

	09:00 ~ 12:00	하바다케 21 어린이 회의	
	12:00 ~ 13:00	중식	
	13:00 ~ 17:00	니가타시내 산책(각 조별로 이동)	
	17:00 ~ 20:30	송별회	
	20:30 ~ 21:30	입욕 시간(샤워 시설)	
	21:30 ~	취침	
8/27 (토)	06:30 ~ 07:00	기상, 세면, 방청소	오하타 소년센터
	07:00 ~ 07:20	조식	
	07:20 ~	오하타 소년센터 출발, 공항도착	
	09:30 ~ 11:45	니가타 공항 - 인천(KE764)	
	15:00 ~ 15:46	인천공항 - 서울역(공항철도)	
	16:20 ~ 18:38	서울역 - 울산역(KTX)	
	18:38 ~	인원점검 및 안내사항 전달 후 귀가	

VI '하바다케 21' 준비

1. 참가자 사전연수

- 가. 기간 : 2016. 6. 13(목)
- 나. 장소 :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학협의회호실(4층)
- 다. 대상 : 참가 아동 및 학부모, 인솔교사
- 라. 내용 : 참가자 교육, 준비물 안내, 연락망 조직, 장기자랑 및 울산소개 준비 등

2. 우호 증진을 위한 선물 준비

- 가. 교육청 : 하바다케 21 회장, 공장견학 사장, 니가타 시장, 오하타 소년센터, 묘코 자연의 집
- 나. 개인 : 홈스테이 하는 가정을 위한 선물, 그룹활동 팀 리더 2명, 각 참가국의 그룹 친구(6~8명) 등

3. 참가자 사전 준비

- 가. 어린이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발표력(가족소개, 울산소개, 소감 발표 등)
- 나. 그룹별 우수한 활동을 위한 협동 정신과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 다.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태권무) 준비(프로그램에 따른 소품, 의상, CD 등도 준비)
- 라. 한국 문화나 가족을 소개 사진이나 자료 준비(울산 소개 코팅된 A4 사진)
- 마. 활동 사전 교육

- 언어 교육 : 기본적인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3국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
 - 한국 문화 교육 : 한국과 울산에 대하여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기
 - 일본, 러시아, 중국 문화 교육 : 참가국 각 도시의 특성 알기
 - 예절 교육 : 공동체 생활의 기본예절, 일본 가정 방문 기본 예절
- 바. 준비물 : 운동화, 간편화, 여벌 옷, 긴 소매 옷, 긴 바지, 잠옷, 간편복, 세면도구, 수건, 모자, 우산, 여권, 캐리어(잠금장치), 개인 상비약

4. 참가자 주의사항

- 가. 6박 7일 간 가족과 떨어진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 심신이 건강해야 함
- 나. 모든 소지품에는 이름 쓰기
- 다. 휴대전화, 음식물, 게임기, MP3, 고가의 물품 등은 소지 금지, 용돈은 최소화
- 라. 영어나 일본어 등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마. 전체 일정에 차질을 주는 개인적인 일탈 행동은 금지
- 바. 정해진 규칙과 프로그램의 정해진 시간 엄수
- 사.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및 유지

VII 출국과 귀국일 일정

1. 출국일 일정 (2016년 8월 21일)

- 11:00 KTX 울산역 집합, 기념촬영(KTX에서 간식/개별 준비)
 - 12:23 KTX 울산역 출발(인천공항행으로 환승이 없어 시간이 절약됨)
 - 18:35 인천발 니가타행 항공편 출발(KE763)
 - 20:30 니가타 도착
- (하바다케 회장단에서 미니 플래카드로 환영, 캠핑카 2대로 숙소 이동)

2. 귀국일 일정 (2016년 8월 27일)

- 09:30 니가타발 인천행 항공편 출발(회장단에서 승용차로 공항까지 배웅)
- 11:45 인천공항 도착(점심 식사)
- 15:00 서울역 출발(공항철도)
- 15:46 서울역 도착
- 16:20 KTX 서울역 출발

VIII 마무리

1. 성과

- 가. 단장, 인솔교사를 비롯하여 참가학생들에게 뜻깊은 세계문화 체험 기회였음
- 나. 학생들 간의 순수한 국제교류활동으로 참가자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됨
- 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라. 4개국의 참여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봄
- 마. 외국어 의사소통 향상 및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함
- 바.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가짐
- 사. 일본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문화와 프로그램의 오랜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임
- 아. 한국의 위상을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짐

2. 건의사항

- 가. 코스를 나누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솔단원 2명이 모두 일본어가 유창한 경우 학생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됨.
- 나. 일본 약 제조법이 바뀌어 학생 개인 먹는 약은 꼭 캐리어 안에 준비해야 함
- 다. 귀국 일정 KTX 시간을 조금 앞당겼으면 좋겠음.

IX 인솔교사 소감문

1. 행사 1일(8. 21)

- 오전 11:00 KTX 울산역에서 개별로 집합하며 참가 아동 부모님 모두 배웅을 나왔다. 출발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열차에 올랐다. 모두 같은 단체복을 입고있어 쉽게 눈에 띄었다.
- 12:23 KTX 울산역을 출발하는 인천 공항행 열차에 탑승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먹으며 15:41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을 하고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쉬며 탑승시간을 기다렸다. 18:35 인천발 니가타행 항공편으로 출발하여 20:20 니가타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어둑어둑하였다.
- 마중을 나온 분들이 도착 게이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HABATAKE21”이라고 적혀있는 수건을 들고 우리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다. 하바타케 임원들의 개인차에 각각 올라 곧바로 오하타 소년센터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러시아 팀은 도착해 있었다.

2. 행사 2일(8. 22)

- ‘하바타케 21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본 프로그램의 시작은 일본을 제외한 3개국 이 도착한 다음날인 오전부터로 계획되어 있어, 아침 일찍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침으로 애그샌드위치와 우유, 파인애플을 먹고 짐을 다시 챙긴 다음 니가타 역에 가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팀들과 일본 학생들과 합류했다. 요코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정도 걸렸다.

요코 국립청소년 자연의 집은 산 속에 위치해있었다. 그곳에 도착하여 조편성을 시작으로 오후 오리엔테이션과 저녁 환영회로 시작되었다. 조편성은 각 나라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수 있도록 나라별로 골고루 배정하였다. 전체 진행 언어는 일본어로 이루어지며,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의 통역을 거쳐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여섯 개의 도시(니가타, 울산,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서안, 하얼빈) 참가자들 모두 약간은 긴장되었으나, 기대에 가득찬 눈을 하고 있었다.

그룹별로 2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리더로서 학생들의 활동을 진행하고, 의사소통을 돕고 있었다. 대학생 리더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진행을 책임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연습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배정된 숙소에 짐을 풀고 중식 시간을 가졌다. 요코 자연의 집에는 자율 배식이라 학생들이 원하는 양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요코 자연의 집에서의 밥이 맛있어서 좋다고 했다. 여러 가지 반찬과, 밥, 면종류, 죽종류 등등 아이들

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가져와서 먹을 수 있었다.

이 날 오후 프로그램은 니가타 청년회에서 주관하였다. 니가타 청년회 소속의 사람들은 08선배들같은 개념이었다. 그 중에는 1회부터 참가해온 대선배도 있었다. 운동회를 하기에 앞서 각 그룹별로 색깔이 다른 티셔츠에 응원 메시지나, 각자의 언어로 쓴 이름 등을 써서 자신의 티셔츠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그 나라 말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하거나, 이름을 남겨주기를 부탁하면서 점점 친밀해져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운동회 프로그램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부대낄 수 있는 경기들로 구성되어 경기가 진행되어가면서 참가자들은 더욱 가까워져갔다. 경기에는 의자뺨기 게임, 몸으로 말해요, 큰 바지 입고 달리기 등이 있었는데, 청년회 봉사자들의 몸으로 보여주는 설명에 학생들이 크게 웃기도 했다.

운동회가 끝난 후에는 석식을 먹고 각 도시별로 준비한 장기자랑 순서를 가졌다. 전통춤, 민요 독창 등 공연하는 다른 도시들의 공연도 인상 깊었다. 울산의 학생들은 단채로 맞춘 단복을 입고 새천년건강체조와 붐바스틱 춤을 추었다. 도복을 갖춰 입고 울산을 대표하여 친구들 앞에서 선보이는 모습이 사뭇 비장해보였다. 이어지는 캠프파이어는 날씨가 흐린 관계로 캔들파이어로 대체되었다. 불의 신으로 분장한 관계자는 정말로 한쪽 어깨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 불을 점화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모두가 힘겨게 라인댄스를 추며 흥겨운 한마당이 되었다.

3. 행사 3일(8. 23)

오전에는 참가자들의 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자가 참가자들 도시의 지리상 위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니가타의 학생들이 자신의 도시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진 뒤 0, X 퀴즈로 니가타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나라별로 자신이 살고있는 도시를 소개했다.

도시 소개에 이어 야외 취사 활동을 진행했다.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우고, 밥과 카레를 만들었다. 재료를 다듬고 불에 부채질을 해 더 세게 하였다. 연기가 많이 나 눈이 매웠지만 아이들은 직접 자신이 먹을 요리를 만든다는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 하는 것 같았다. 그 외 어른들은 돈지루, 야키소바, 생강돼지고기볶음 등을 만들었다.

힘든 과정을 거친 뒤 먹는 요리라 그런지 모두에게 꿀맛인 점심식사였다. 뒷정리까지 아이들 손으로 직접 한 뒤에야 취사활동은 모두 끝이났다. 고사리 손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니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약간의 자유시간 뒤 다시 체육관에 모여 각 조별로 응원구호를 만들었다. 어제 만든 티셔츠를 입고 자신만의 구호를 만들었

다. 멋진 구호도 있지만 웃음을 주는 구호도 있어 모두 깔깔거리며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이후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 별을 관찰하는 경험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날씨가 흐려 전문 사진작가인 와타베씨가 찍은 별사진을 슬라이드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총 세 편의 비디오를 봤는데 첫 편은 일본 곳곳에서 찍은 아름다운 밤하늘 사진이었다. 아이들은 황홀하고 신비로운 별사진에 금방이라도 빠져들 것 같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월식과 일식의 영상이었다.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일식과 월식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우주의 신비를 느꼈다.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을 와타베씨에게 질문하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포착하는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4. 행사 4일(8. 24)

행사 4일째, 요코 자연의집을 떠나 일본의 산업현장인 다니치공장을 견학했다. 아침 체조와朝食 시간을 갖고, 버스에 올랐다.

다니치공장은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를 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금까지 이 행사의 주진행자로 활동하던 본스케씨(인사담당)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했다. 정심은 공장에서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먹었다. 앞으로의 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공장의 모습에 흥미를 많이 느꼈다. 커다란 기계에서 찍혀 나오는 주물들의 모습이 신기했던 것 같다. 일정의 과정을 지나면 완성된 난방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경험이였다.

다니치 공장 견학이 끝나고 다시 니가타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홈스테이 가정에 연계했다. 한 가정에 1~2명의 아이들이 갔다. 아이들은 조금 설레면서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아이들이 잘할 것이란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날까지 보여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믿음이 생겼다.

아동들이 일본의 가정에 머무는 이 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활동 기간 중 유일하게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이 날 저녁에는 각 도시의 인솔교사와 통역과 함께 니가타 하바타케 21회의 회장과 실무자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은 특별히 니가타 시청에서 각 나라를 담당하는 주무관들도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향후 관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바타케 활동은 모두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과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 순수하게 일이 좋아서 하는 그들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다.

5. 행사 5일(8. 25)

3시 쯤, 홈스테이를 마친 참가 아동들이 하나 둘 미소가 가득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속속 도착하는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홈스테이 경험이 무척 즐거웠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각각의 홈스테이에서 슈퍼도 가고, 마쓰리에 참석도 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왔다. 같이 갔던 일본인 친구와는 더 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에는 오하타 청소년 센터로 돌아와 일본의 전통 놀이와 서도, 다도를 체험하는 하바다케 축제를 했다. 친구들과 교환할 수 있게 자신의 주소를 적어 나눠 갖기도 하고 유카타를 입고 일본식 다도를 체험하기도 했다. 직접 일본의 유카타를 입고 다도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즐거워 보였다.

6. 행사 6일(8. 26)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하바다케 21의 일정으로 어린이 회의가 있는 날이다. 니가타 일보가 자리잡고 있는 미디어 숲에서 먼저 각 도시별로 하바다케에서 느끼고 배운 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각 도시의 대표아동들이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바다케21 선언을 함께 하였다. 앞으로도 우정을 이어나가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하바다케 정신을 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였다.

오후에는 각 조별로 니가타 산책을 하였다. 아이들은 조별로 대학생 리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시내를 걸어나왔다. 일본의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일본 시내길을 돌아다니며 니가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다. 수련활동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 시내 구경을 하는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저녁에는 강당에서 송별회를 하였다. 내일이 하바다케21 활동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큰 원을 만들어 한사람 한사람 직접 악수를 하며 미리 마지막 인사를 했다. 또, 자신이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친구들과 리더 선생님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다. 헤어짐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익숙해지지 않는 슬픈 것 같았다. 어느새 체육관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7. 행사 7일(8. 27)

울산팀의 비행기가 9시 30분이어서 우리는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정신없이 오하타 청소년 센터를 나왔다. 헤어질 때 인사는 길게 하지 못했지만, 어제 송별회에서 인사를 나누었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둘러 나왔다. 하바다케 21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어른 모두 함께 우정을 나누는 기쁨을 알았다. 말은 통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소통하며 함께 보낸 7일간의 우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 우정초등학교 6학년 박시우

가. 1일차(8.21)

-오늘의 주요 활동: 울산 KTX역 친구들을 만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니가타공항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기

-드디어 21일이 왔다. 아침부터 준비해서 KTX역에서 친구들은 만났다.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니 막상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게 슬펐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여서 조금 나왔던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기차에 탔다. 게임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 친해졌다. 그리고 3시간동안 심심함과 싸움 후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시간 동안 공항에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햄버거 먹고 난 후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버스를 타러 내려갔다. 버스가 도착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나는 가위 바위 보에 이겨서 우승이랑 같이

앉게 되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우리는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창 밖을 구경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내가 갑자기 흔들렸다. 나는 너무 놀라서 자는 척을 했다. 그리고 한 2분 동안 흔들리다가 다시 괜찮아졌다. 그리고 드디어 안전하게 니가타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모두 엄마에게 잘 도착했다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중국인들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우리랑 중국인은 같은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국인들과 같이 우리는 차에 같다. 차가 작아서 중국인과 우리는 서로 섞여서 탔다.

그렇게 차로 20분을 탄 후에 우리는 오하타 청소년 센터에 도착했다. 우리는 숙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남자는 남자방, 여자는 여자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목욕을 하고 여자방에 모여 엄마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우리방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는 여자방보다 더 시원하고 좋은 대청에서 잤다. 편안하게 잤다.

나. 2일차(8.22)

-오늘의 주요 활동: 그룹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고 장기자랑하고 캠프파이어 하기

-잠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아침이 너무 깨운 했다.

5시 30분에 깨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 아침은 샌드위치와 우유 그 두 개를 먹었다. 한결이 는 배가 고팠지만 이 두 메뉴만 나와서 좌절을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요코 자연 의 숲으로 출발하였다. 중간에 일본 친구들을 픽업하고 요코 자연의 숲에 도착했 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다.

바로 이 요코 자연의 숲에는 곰이 있다는 말과 이 곳은 산길이라 데이터나 와이파 이가 안 터져서 엄마들에게 문자를 못 보내고 자는 것도 각자 그룹이랑 같이 잔다 는 거였다. 뭐 나에겐 좋은 기회이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멘붕이 왔다.

그렇게 우리는 그룹이 정해졌고 그 그룹으로 이동했다. 우리팀에는 일본인 2명, 러 시아인 1명, 한국인 1명 일본인 대학생 형 2명이 있었다.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고 장기자랑과 캠프파이 어를 하로 강당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 한국팀들은 새천년 체조와 붐바스틱을 쳤다.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친해져서 좋았다. 우리는 장기자랑이 끝나고 캠프파 이어를 하였다. 원래는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캠프파이어를 할려고 했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체육관에서 양초를 키고 안에서 캠프파이어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춤 을 추면서 열심히 놀고 방으로 와서 목욕하러 갔다. 그 담에는 방으로 와서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로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잠 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잠을 잤다.

다. 3일차(8. 23)

-오늘의 주요 활동: 야외에서 밥짓기

-오늘은 어제 목욕을 하고 자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일어 나서밥을 먹고 울산에 대해 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야외에 밥을 하러 나갔다. 나와 러시아 친구 일본친구랑 불을 붙인다고 손을 들어서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일본친구와 중국친구는 야채를 썰었다. 불 붙이는거는 눈이 아팠다.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 얼굴쪽으로 불었기 때문이다. 그 래도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나의 리더 선생님 (대학생형) 쓰시로 선생님과 서브리더 선생님(대학생형) 백까 선생님이 응원해줬 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그렇게 돌이먹다 한명 죽어도 모 르는 아주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만든 밥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다. 우리는 다 먹고 정말 정말 정말 정성으로 “고치소사마데시따”를 하였다. 우리는 그 후에 설 거자를 하였다. 우리그룹의 단체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하나된 느낌이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자유시간에는 카드놀이를 할려고 하였다. 그 런데 갑자기 야외에 시계를 거기에 나두고 왔다. 급한 마음에 거기를 갔다 다행히 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우리는 정말 맛있는 천체를 관측

했다.

별들이 무수히 매우 많았다.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하루라고 생각했다.

옆에 있는 러시아친구들은 재밌는지 계속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갔 다. 우리는 목욕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2층 침대에서 잤다. 나는 1층에서 잤는데 옆에 자는 친구들이 바로 잠이 오지 않아서 인지 이야기 하는 소리 때문에 나 또한 잠이 오지 않았다.

라. 4일차(8. 24)

-오늘의 주요 활동: 홈스테이 가기

-오늘은 이제 요코 청소년 자연의 집에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약간 슬펐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러 운동장에 갔다.

우리는 이제 아침을 먹고 빌딩으로 출발 했다. 우리는 빌딩에 도착해서 자신의 홈 스테이하는 엄마들을 기다렸다. 내가 홈스테이하는 친구의 이름은 커즈키인데 그 친구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커즈키의 엄마께서 오셔서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커즈키는 동생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내 손의 4분의 1만큼 큰 장수풍뎅이가 있었다. 이렇게 큰 장수풍뎅이는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파티에 가서 폭죽 놀이도 하고 바닷가에서 놀기도 했다. 저녁은 여러 어머 니들께서 만들어 주신 최고의 만찬이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밖에서 30분 동안 놀 았다. 그 곳에서 남회를 만났다. 커즈키랑 남회 홈스테이하는 친구랑 친한 친구라 고 했다. 휴대폰에 사진을 담고 싶었지만 남회한테 보조 배터리를 빌릴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빌리고 말았다. 폭죽놀이에서는 커즈키가 진짜 잘 챙겨줘서 편안하게 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커즈키랑 추억들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 로 돌아와서 잠을 잘 준비를 하려고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할려니 욕조에 이상한 향 을 넣어서 목욕을 하였다. 무슨 향인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었다. 깨 운하게 목욕을 한 후에 잠자리에 누웠다. 한국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잠을 잤 다.

마. 5일차(8. 25)

-오늘의 주요 활동: 오하타 센터에 행사 하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테이블에 이불이 있었다. 아침은 맛있는 계란 후라이와 빵 그 리고 콩 스프였다.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난 후에 작년의 골드버그 대회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인터넷으로 피타고라스 워치를 보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다시 보니 깜짝 놀랐다. 그런 후에는 부품으로 골 드버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쌀과자 같은 센베이라는 과자를 만들러 갔다. 처음에는 실패 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해서 맛있는 모양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마트에 가 서 기념품을 샀다. 그런 후에는 일본 라멘과 볶음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오하타

청소년 센터에 와서 행사를 했다. 우리는 맨 처음으로 주소와 이메일을 적었다. 그런 후엔 서예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다. 그리고 행사를 마쳤다. 그 다음에는 목욕을 하고 취침을 하러 갔는데 러시아 친구들이 떠돌고 뛰고 있어서 잠을 잘 못 잤다. 그래도 잠을 잤긴 잤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오셔서 몇몇 친구들이 혼났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

바. 6일차(8. 26)

-오늘의 주요 활동: 탐방하기

오늘은 친구들과의 마지막 날이었다. 우리는 아침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빌딩에 가서 어린이회를 하였다. 먼저 각 나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거였다. 서로 열심히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우승자와 은세가 발표 하였다. 회의 결과는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고 같이 장도 자니 재미있었다. 라는 결과였다. 우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결과를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랑 소현이가 한국대표로 나서는 선서를 하였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단체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니가타를 돌아다녔다. 메뉴판에 닭고기라멘사진을 보니 먹고 싶어서 라멘을 선택하여 먹었다. 기차로 기도하는 곳에 갔다. 우리는 기차에서 재밌는 놀이를 하고 절에 갔다. 우리는 기념 사진을 찍고 절에 갔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경치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걸어서 오하타 청소년 센터에 갔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행사를 행사를 했다. 서예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차도 마셨다. 우리는 방으로 와서 취침을 했다 러시아친구들이 조금 활기찼지만 그래도 이젠 적응이 되어서 인지 잠을 잘 수는 있었다.

사. 7일차(8. 27)

오늘의 마지막 날에는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을 했다. 우리가 가장 일찍 갔다 우리는 큰 차로 3대로 나누어서 갔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여러 과정을 거친 뒤에 우리는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고 비행기를 타러갔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2시간정도를 앉아있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때웠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KTX를 타기 위해서는 2시간동안 역에서 기다려야했다. 탐방을 하고 놀면서 2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울 역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다시 서울역에 가서 울산으로 향하는 KTX를 탔다. 나는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몇 분 있었는지 모르고 놀다가 갑자기 울산역이라는 글자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였다. 울산에서 가족들을 만나니 기쁘지만 친구들과 헤어진다는게 슬펐다. 출발 전에는 일주일 시간이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일 듯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빨리 지나간 듯했다.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오래 오래 기억하고 싶다. 우리 그룹이었던 친구들과 한국친구들이 다시 만나서 여행가면 좋겠다.

2. 은양초등학교 6학년 서한결

가. 1일차(8.21)

드디어 기다리던 니가타로 가는 첫 날이 왔다. 일본에 가서 보낼 줄 단체 장기 자랑 연습을 하면서 좀 친해졌는지 울산역에서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가웠다.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기차가 올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ktx 플랫폼으로 갔고 기차가 왔다. 밖에서는 부모님들이 인사를 하고 계셨다. 1주일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걸 생각하니 조금 걱정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의 일주일도 더 기대되고 설레 었다. ktx는 출발했고 우리는 3시간 10분 정도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그냥 우리들끼리 놀았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우리는 비행기 출발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공항 안에서 물건을 사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이륙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다. 드디어 일본으로 가는 실감이 났다.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도 먹고 영화도 보다가 음악도 듣고 하는 사이에 벌써 니가타에 도착했다. 니가타 공항에서는 하바다케 21 현수막과 함께 우리를 반기는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숙소로 이동했다. 첫날이라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선생님과 같이 잤다. 우리가 자는 방은 침대는 없었지만 이불도 폭신평신했어서 잠이 잘 올 것 같았다.

나. 2일차(8.22)

우리는 오하타 소년센터에서 출발한 뒤 요코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중간에 니가타역에서 일본 사람들이 합류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로 2시간 정도 이동했다. 풍경이 거의 한국이랑 비슷했다. 요코에 도착해서 우리는 며칠 동안 같이 지내게 될 팀을 만났다. 우리 팀에는 나, 러시아에서 온 친구 둘, 중국과 일본에서 온 친구 각각 한명씩 해서 팀이 되었다. 팀을 짰 뒤에는 점심을 먹고 운동회를 했다. 운동회에서 몸으로 설명해서 맞히는 게임, 의자 뺏기 게임, 큰 바지에 들어가서 빨리 달리는 게임을 했는데 총 점수는 우리가 주황 팀과 함께 공동 1등을 했다. 운동회를 한 뒤 저녁을 먹고 나라 별로 장기자랑을 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연습한 새천년 건강체조와 춤을 추었다. 그리고 캠프 파이어를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안에서 하고 난 뒤에 씻고 잤다. 요코는 침대가 있어서 좋았다.

다. 3일차(8. 23)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한 뒤 아침을 먹고 모두 모였다. 모두 모여서 각 도시 별로 소개하기를 했는데 먼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얼빈, 시

안이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울산의 공업. 반구대 암각화, 천정리 각석, 불고기, 울산배에 대한 내용 등으로 울산을 소개했다. 생각보다 많이 떨렸다. 발표를 하고 우리는 밖에서 요리를 했다. 1조에서 5조까지는 카레를 만들고 6조에서 10조까지는 미소된장국을 만들고 같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내가 속한 조는 5조였는데 처음으로 불을 피우고 카레를 만들어 봤다. 집에서 부모님이 카레 요리를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직접해보니 어려웠다. 그렇지만 재미있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진 뒤에 각 팀별로 응원 춤을 만든 뒤 저녁을 먹었다. 저녁도 맛있었다. 원래 저녁을 먹고 나서 별을 보기로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별을 보지 못하고 별 사진들로 만든 동영상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날씨가 좋아서 실제로 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더 아름답을것이다. 생 하루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 숙소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잠을 잤다.

라. 4일차(8. 24)

오늘은 요코를 떠나 다이니치 공장 견학을 하고 홈스테이를 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아침을 먹고 요코에서 버스를 타고 다이니치 공장으로 갔다. 다이니치 공장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다이니치 공장은 난방기구를 만드는 회사였다. 우리는 다이니치 공장을 돌아다녔다. 많이 더웠다.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았다. 공장 견학을 하고 버스를 타고 모였다가 홈스테이를 하는 집으로 갔다. 나는 다행히 우승이와 같은 집에 갔는데 그 집의 가족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저녁으로 타코야끼를 먹었다. 일단 그 집에서 타코야끼를 많이 주셔서 나와 우승이는 각각 19개씩 먹었는데 그 집의 가족들은 24개 정도로 많이 드셨다. 배가 터질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포커와 우노, 그리고 게임을 했다. 많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폭신한 이불에서 잤다.

마. 5일차(8. 25)

홈스테이 둘째 날이 되었다. 나와 우승이 그리고 홈스테이 하는 집의 레이와 레이의 아버지는 집에서 쉬다가 수영을 하러 갔다. 우리가 간 수영장은 파도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도 작았다. 그래도 우리는 신나게 놀면서 많은 이야기도 했다. 수영을 한 뒤 우리는 집에서 쉬다가 홈스테이 하는 집에 감사의 선물을 전해주고 오하타 소년센터로 돌아왔다. 오하타 소년센터에서 여러 설명을 들은 뒤 하바다케 축제를 했다. 우리 팀은 먼저 서예를 한 뒤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차를 마시는 걸 했다. 서예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옛날 우리조상들은 서예를 많이 했다는데 요즘은 보기 힘든 것 같다. 일본전통 의상은 처음 입어봤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 많이 더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저녁을 먹고 회고록을 썼다. 회고록을 다 쓴 뒤 우리는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준비를 했다.

오하타에서는 남자 모두가 다 같이 자서 나는 한국 애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잘 수 있었다. 너무 좋았다.

바. 6일차(8. 26)

오늘은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니가타 시내에 나가서 어린이 회의를 하고 니가타 시내 견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회의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최우승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박은세가 했고 선서는 박시우와 신소현이 했다. 어린이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맥도날드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니가타 시내를 돌아다녔다. 애니메이트라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신사에 가서 신사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버스를 타고 오하타로 돌아왔다. 오하타에서는 저녁을 먹고 체육관에 갔다. 체육관에 가서 송별회를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울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많이 친해졌는데 헤어지게 돼서 나도 너무 섭섭했다.

일본에서의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너무 아쉽고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별회를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다. 나와 같이 한국에서 온 애들은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주었다. 내일이 정말 기대된다.

사. 7일차(8. 27)

나는 오늘 평소보다 많이 일찍 일어났다. 오늘 울산 팀은 7시 20분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빨리 싸야 했다. 짐을 싸고 아침을 먹은 뒤 공항으로 갔다. 일본에 처음 온 날은 밤이라서 니가타 공항이 작은 줄 몰랐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 많이 작았다. 일단 공항 면세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서 약간의 선물을 사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안에서 노래를 듣다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도착 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에서 놀다가 직통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다시 부산행 ktx를 타고 울산역으로 왔다. 울산역으로 올 때 까지 애들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았다.

선생님 두분과 같이 간 친구와 동생들과 많이 친해진 것 같았는데 헤어지게 되어서 많이 아쉬웠다.

일주일동안 선생님이 두분이 우리들을 챙기시느라 많이 고생하신것 같다.

선생님께 많이 표현은 못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두 분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하바다케 21 울산대표로 선발된 후 일본 가서 잘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6학년 친구와 동생들, 선생님 두 분이 함께해서 재미있게 잘 갔다온것 같다. 다음에 외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소통을 더 잘 하고 싶다.

울산역에 오니까 너무 좋았다. 역시 우리집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격동초등학교 5학년 최우승

2014년 8월 21일(일) 첫째 날 : KTX역에서 하바다케21 사진 찍기, 일본 입국하기!, 오하타 소년센터로 가기

웬지는 모르겠다. 느낌이 온다.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사실, 속으로는 엄청 기대하고 있었다. 그게 티가 난 것일까? 원래 6월에 처음 모두가 만났지만, 내 한국 친구들에게는 8월에 일본에 간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이 오고만 만 것일까? 나는 꿈에서 깨어, 볼을 꼬집어보았다. 원래 내가 이렇게 긴장감이 많았었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KTX역에 갔다. 남부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 낮이 익은 얼굴과 노란색 단체 티셔츠가, 그 넓은 울산역에서 한눈에 보였다. 다시 한번, 모두가 모였다. 오늘로서 4번째인가? 하바다케의 뜻이 날갯짓하더라는 뜻이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어느새, 아시아의 드넓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아아, 얼마쯤이나 갔을까. 정신없이 도착한 곳은 니가타였다. 니가타의 뜻이 새로운 호수라는 것을 알았다. 일본이구나... 나는 처음 와보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한 나라지 등등의 말을 주절주절하면서 공항에 있던 차에 탔다. 아벨싸. 실감이 나는구나. 중국 아이들을 보았다. 한결 형이랑 시우 형은 앞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가고 있었다. 웬지는 모르겠다. 내 옆에 중국인이 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싫지는 않았지만, 엄청 떨렸다. 처음 말을 건넸다.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물어봤다. 시안(西安)에서 오셨다. 인솔교사로 보이는 한 분이 나에게 중국어를 잘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시우 형이 어지럽다고 했다. 일본은 우리와 길이 반대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나 보다. 어느새 오하타 소년 센터라는 곳에 왔다. 하지만, 휴대폰 충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한번 절망했다. 유성용 선생님도 그닥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다. 내가, 110V 플러그까지 들고 왔는데, 절망적으로, 아니 절실하게, 휴대폰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잠시 후, 내 폰께서 아사하셨다. 우리는, 시우 형이 들고 온 유일무이한 구원의 존재 보조배터리를 발견하고, 시우 형을 왕처럼 모셨다. 내 폰은 다시 깨어나신 걸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하바다케21의 첫날이 갔다. おやすみ.

2014년 8월 22일(월), 둘째 날 : 묘코로 가기. 1주일을 함께할 그분들을 만나기. 캠프아이여.

오호라. 다음날이다. 순조롭게 하루를 보낸 자의 기분을 느꼈다. 일본에서, 일본의 상징인 해를 보았다. 기분이 묘하다. 이날부터, 내 머릿속에 일본이라는 개념이 박힌 것일까? 우리는 버스를 탔다. 2시간을 열심히 달렸다. 그리고, 왔다. 앞으로 3일을 보내야 하는 자연의 집, 묘코에. 만났다. 내가 1주일을 함께해야 할 그분들을.

중국 하얼빈에서 온 리우-안치 (LIU YANQI)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레브리콥 티모페이 (LEBRIKOV TIMOFEI)

한국에서 온 나 (我)

일본 니가타에서 온 이누카이 린타로 (INUKAI RINTARO)

일본 니가타에서 온 이타가키 레이 (ITAGAKI REI)

멋진 대학생 형들. (AMO, PURATAN)

모두를 만났다. 함께 운동회를 하였다. 우리 조에는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로였다. 사실, 나도 운동을 엄청 못한다. 그래서 운동회 때 꼴찌를 했다. 하지만 괜찮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말은 달라도, 4개국의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뛰었으니까. 그러면... 딱히 승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이 게임의 목적은, 단합인 것 같다. 앞으로 2일을 더 있어야 한다. 단합이 안 되면, 같이 있어도 되는 일이 없고, 한 마음을 맞추지 못해 매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우정을 위해 뛰는 것이다. 운동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캠프파이어를 했다. 실내에서. 커다란 숲에 양초를 놓고, 불을 켜다. 아름다웠다. 숲의 맨 꼭대기엔, 성화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여러모로 유익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앞으로의 일이 웬지 잘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우리는 단합을 끝내고, 폭 쉬었다. 자연 속에서 쉬니,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이보다 편할 수 있을까? 가족도 없는 타지였지만, 웬지 모르는 포근함과 행복감을 느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하늘이 나에게 말한다... 오늘 수고했다고. 웬지 기분이 좋다... 잘 자, 애들아.

2014년 8월 23일(화), 셋째 날 : 각 도시 소개, 밥 짓기, 별사진 보기, 그룹별 응원동작 만들기

생각해봤나? 그동안 시간을 너무 허비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아침에, 난 웬지 침대를 떠나기가 싫어졌다. 누군가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솜씨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휩쓸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 어제의 몸싸움(운동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한결 형은 갑자기 집이 그림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붙이고, 여기는 내 집 내 침대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아하. 묘코구나. 다른 날들과는 대조되게, 대단히 불쾌한 아침을 맞이했다. 우리로선 처음으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다. 울산을 소개한다. 하지만, 어제 만난 다른 나라 아이들 앞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발표하기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짜 주신 대본을, 나는 읽었다. 아차. 중간에 말실수를 한 게 생각난다. 우리나라 언어를 다들 몰랐지만, 내 실수를 인지함을 알고 있었다. 어제 찾던 의지는 오늘 순식간에 모두 써버렸고, 나는 기운이 없어졌다. 다시 기운이 생긴 이유는, 점심밥을 야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양파 썰기와 불 때우기를, 눈물 없인 할 수 없었다. 아, 쌀도 씻었다. 밥을 지었는데, 냄비에 쿠렌자 라는 것을 발랐다. 나는 요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바르는 거라고 생각했다. 주메뉴는 카레라이스. 야끼소바라는 음식도 있었는데, 이 음식은 우리로 치면... 아니다. 야채랑 면을 볶아서 만든 건데, 나는

처음 먹어봤다. 오, 이 환상적인 맛이며. 입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맛이 난다. 나는 면 종류를 참 좋아한다. 오늘 새로 접한 면요리의 참맛을, 한입에 접해 봤다. 저녁엔 와타베 상이 짝은, 아름다운 별사진을 보았다. 조명이 꺼졌다. 빔 프로젝터가 켜진다. 환상적인 사진들이 눈앞을 수놓았다. 오, 이 검은 배경에 반짝이는 푸른 빛의 별이며. 아름다웠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다. 나도 세상의 빛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나만 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대단히 낮가리는 문제여서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고만 있었다. 나중에, 한국 오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진은 빔 프로젝터 안에서 작동하였다. 아마 엄마도 알고 있겠지. 행복이란 것을.

2014년 8월 24일(수), 넷째날 : 요코에서 떠나기, 다이니치 공업 공장 가기, 홈스테이 가정

에 가기. 드디어, 나는 자연과 헤어졌다.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구름이 가득 끼어 그럴 수는 없었다. 꽤 아쉬웠지만, 나는 하바다케21의 일정에 따라, 요코를 떠나 다이니치 공장에 갔다. 석유로 가동되는 팬 히터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다른 공장의 칙칙한 모습을 벗어난, 활기찬 초록색 페인트로 위의 벽이 도배된, 행복해 보이는 공장이었다. 내 친구들은, 엄청난 철과 제련 기술과 조형물을 만드는 기계에 감탄했고,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본스케 상이 말하셨다. 팬 히터를 아이디어에서부터 실제로 만드는 데의 시간은 15일이 넘었다고. 지금도 다이니치 공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 15년이 넘은 공장이지만, 부품 하나하나가 매우 정교하여 현재 일본에서는 제일가는 팬 히터 공장이라고 한다. 공장은 매우매우 넓었고, 나는 발 한발씩씩을 걸을 때마다 감탄을 했다.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기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부품을 사교파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기계를 구동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수동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국의 공장과는 아주 다르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빙그레 웃어 보이셨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는 공장은 이런 곳이었을까? 대한민국의 공장도 똑같이 가보았지만, 이보다 활기 넘치는 공장을 찾을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는 내가 공장에 대해 생각한 모습이었고, 홈스테이에 가려 했다. 나랑 같은 조인 ITAGAKI REI의 집에 갔다. 한결이 형도 갔는데, 나는 생각했다. 일본이 소식한다는 모두 뻥이었다. 저녁으로 타코야끼를 15개 먹었다. 거기에 미소된장국 2그릇, 물 6잔을 주셨다. 음... 내가 문어를 싫어하지만, 맛있었다. 하지만 15개라는 놀라운 양과 함께라면, 더 이상 이번 년도엔 타코야끼를 먹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먹고 나서 또 후식을 주셨다. 나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하지만 이미 타코야끼 15개가 들어간 배에, 후식이 들어가긴 좀... 나는 배부른 채로 숙면에 들어갔다. 아...

2014년 8월 25일(목), 다섯째 날 : 홈스테이 끝, 오히타 소년 센터에서 다시 모이기

오늘은, 레이랑 수영장에 놀러갔다. 수영장은 한산했다. 우리는 준비를 끝내고,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았다. 나는 Snake.io라는 놀이를 엄청 좋아한다. 물속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만지면, 상대는 물밖으로 나갔다 10초 후 다시 들어오는 게임인데, 한결이 형이랑 했다. 아주아주 재밌었다. 서로 머리를 만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끝은 나지 않았지만, 제 시간이 다되어 물 밖으로 나와 씻었다. 3시 10분에 홈스테이를 하는 집에서 나갔다. 레이 아버지랑 헤어지기가 너무 싫었다. 일본에서 가장 꼭 쉬었던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레이 아버지를 뒤로하고, 나는 오히타 소년 센터에 왔다. 오늘은 쓸게 많이 없다. 오히타 소년 센터에서 남자아이들은 402호 강당에서 이불을 깔고 모두 잤다. 헐. 러시아 애가 내 머리를 밟았다. 아!!!! 그날, 나는 애네들이 왜 그 넓은 러시아에서 뽐혔는지 모르겠다. 자려고 누우니까, 들리는 말이 러시아어랑 중국어밖에 없었다. 선생님에겐 죄송하지만, 나는 잠이 꽤 많이 없는 편이라서 늦게까지 시우 형이랑 자지 않았다. 10 : 30쯤 되니 러시아어와 중국어가 들렸다. 11 : 00엔, 중국어가 사라졌다. 어떡하지? 러시아어가 보다 크게 들린다. 11 : 30엔, 러시아 아이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민폐를 끼치는 아이들이 꽤 많았다. 12 : 00엔, 모두가 숙면을 취했다. 나도 그제서야 잘 수 있었고, 러시아어도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잤다. 여자애들은 이미 한참 전에 잔 걸로 예상이 된다. 선생님이 말하길, 여자아이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자고 있다고 하셨다. 러시아 아이들에게 메시지 한번 보내고 싶다. 애들아, 해외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 하니? 제발 잠 좀 자자, 부탁이다. Р ебята, вы здесь пришли из-за рубежа так громко? Пожалуйста, получите некоторый сон Jar, 이 말을 러시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난 숙면에 들어갔다.

2014년 8월 26일(금), 여섯째날 : 어린이 회의, 니가타 시내 돌아다니기, HABATAKEまつり,

오늘은 미디어 쉽이라는 곳에서 어린이 회의를 했다. 되게 건물이 좋아 보여서, 웬지 모르게 기운이 났다. 나는 벗이라는 개념으로 발표를 했는데, 아뿔싸. 실수가 발생하였다. 쌤이 번역을 할 수 있게 끊어야 하는데, 나는 긴장감에 계속 말해 버렸다. 으이구, 이놈의 긴장감. 어쨌든, 선서하고 난 후 우리는 니가타 시내를 돌아다녔다. 아니?! 비가 왔다. 하필이면 왜 오늘인 것이지?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뛰어가서 버거를 먹었다. 누가 단체활동에서 세트를 시킬까? 우리는 치즈버거를 2개 먹었다. 은근 맛있었다. 일본 와서 먹은 2번째 패스트푸드였다. 첫 번째는 홈스테이에서 먹은 라멘. 그거 진짜, 맛있었다. 된장라면인데, 컵라면으로 먹어보긴 처음이었다. 일단 다시 니가타 시내에 와서 신사에 갔다. 게임<동방프로젝트>의 신사와 다를 게 없었다. 신사 참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오히타 소년 센터에 와서, 하

바다케마쓰리라는 축제에 참가했다. 4가지 코너가 있었는데, 다도, 서예, 저녁, 추억 책자 만들기가 있었다. 다도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카타라는 다른 일본 옷을 입고 했다. 다들, 차를 마시기 전에 먹은 미즈요카라는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수정과+젤리의 맛이 났다. 괜찮던데 월. 그리고 녹차를 마셨다. 우리의 녹차랑 맛이 많이 달랐다. 홍차처럼 거품이 많고, 또 색이 투명하지 않았다. 근데, 맛있었다. 난생 처음 접해본 차였지만, 아주 건강한 맛이 났다. 또, 서예에선 자기 이름이나 하바다케21을 쓰는 것이었는데, 나는 내 이름을 잘 못 쓰는데, 그래서 하바다케21을 썼다. 막상 써보니까 은근 예뻐다. 먹으로 글씨를 쓰는 건 꽤 재밌더라. 그리고 저녁을 먹었다. 카레라이스를 먹었다. 일본 와서 카레라이스를 4번 정도 먹은 것 같다. 맛있었다. 엄마는 일본 카레로 카레라이스를 하는데, 맛이 다르다. 난 익숙해져서인지 맛있었다. 그리고 추억 책자를 만들었다. 엄청 슬펐다. 이때까지 생각없이 일본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막상 회고록을 쓰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대단히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아이들은 쓸데없이 마구 뛰어다녔다. 책상에 무릎을 부딪혀 피가 난 아이도 있었고, 넘어져서 머리를 박을 뻔한 아이들도 있었다. 왜 그러는지 몰랐다. 하여튼, 또 하루가 갔다.

2014년 8월 23일(토), 일곱째날 : 이동.

부스스한 머리로 깨는 아침은, 언제나 괴롭다. 나는 쇼쿠도(식당)에 들어갔다. 그래도, 손과 얼굴은 씻고. 오늘은 어제의 송별회와 함께 하바다케의 막을 내리는 날이다. 초반에 말했었다. 하바다케는 날갯짓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다시 한번 날갯짓할 차례이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오늘이, 드디어 왔다. 왜 울산 친구들만 7시 반에 떠나는 걸까? 마음이 아팠다. 그간 정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다. 평소엔 시끄럽던 팀이, 오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처음 느껴봤다. 나는 우리 팀을 위해 별로 한 게 없는데, 가지 말라고 하며 내 손을 꼭 잡는 러시아 아이의 모습을 보니, 또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중국 애인 안치도 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슬펐지만, 최대한 대담해 보이려고 했다. 차에 타서도, 시우 형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이제, 비행기를 탈 시간이 왔다. 나는, 비행기에서 눈을 적셨다. 막상 일주일을 보낸 니가타를 떠나니, 내 눈물샘이 끝까지 자극된 것이다. 우리는 어느새, 아시아의 드넓은 하늘을 날고 있었다. 아아, 얼마쯤이나 갔을까. 다시 한번, 울산역에 도착하였다. KTX를 타면서 잤다. 일어나보니 경주였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연 풍경을 보면서, 엄마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달았다. 그리고, 울산역에 도착했다. 정신없이 헤어지다 보니, 얘기 한번 나누지 못하고 엄마 품속으로 갔다. 시우 형과 한결 형은, 밴드로 만나자고 했다. 다른 여자 아이들도 밴드에서 모두 만나자고 했다. 나는 밴드를 창설할 힘도 없이, 집에 도착했다. 나는 내 폰의 “데이터 로밍”이 어느새 “모바일 데이터”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국내에 온 걸까? 나는 내 뺨을 꼬집어 보았다. 혹시나, 이게 꿈

일까봐. 하지만, 내가 너무 세게 꼬집어, 뺨이 육신육신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와 일주일을 보낸 그분들이 생각났다. 나는 작은 소리로 숨죽여, 화장실에서 울었다. 도착했다. 나의 집에. 내 동생에게 생일 선물인 계산기를 주니,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다가, 나중에 아주 열심히 갖고 놀기 시작했다. 나중에 수학자가 될 수도? 하여튼, 내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자니 세상만사가 편했다.

4. 울산초등학교 5학년 신소현

가. 1일차(8.21)

나는 오늘 가족과 일주일간 헤어지고 최우승, 박시우, 서한결, 노남희, 박은세 또래 친구들과 추현주 선생님과 유성용 선생님과 함께 일본을 간다고 했다. 일본 니가타 시로 가려면 한국 울산에서 K TX를 2시간 30분 동안 타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1시간 55분 (대략 2시간)을 타고 일본 니가타 시로 간다고 했다. KTX가 울산 역에 오는 시각을 기다리면서 TV도 보고 사진도 몇 장 찍으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KTX를 타러 가야하는 시각 때 전체 사진 한 장을 찍고 출발했다. 정말 떨렸다. 가족과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만들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 가족과 인사를 하고 나는 남희와 짝을 해서 KTX를 탔다. 그런데 조금 지루했다. 할 게 너무 없어서 계속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반복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고 조금 아팠다. 인천공항에서 잠깐 동안 쉴 수 있다고 해서 은세와 남희와 함께 공항 구경을 했다. 먼저 빵집을 가서 카레 고로케를 먹었다. 근데 카레 고로케를 먹고 나서 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하고 계속 다녔는데 비행기 타고 나서 밥 먹을 때 쯤 너무 배가 아파서 결국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손과 등도 두드려봤다. 소화제를 먹으니까 괜찮아졌다. 소화제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자리로 와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영화를 봤다. 일본에 도착하니까 배 아픈 게 조금 나아졌다. 첫 날은 오-하타 소년센터에서 남희, 추현주 선생님, 은세와 함께 자기로 했다. 다음 날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내일은 조를 짜서 조와 함께 다닌다고 했다. 남희와 은세와 같이 있지 못해서 아쉽지만 조를 짜서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빨리 다음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 2일차(8.22)

오늘은 요코에서의 첫 날이다. 오-하타 소년센터에서 요코로 2시간 거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일본친구들, 러시아친구들, 중국친구들, 대학생 선생님들과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 조금 기대를 했다. 조를 짜는 데에서 나는 10조였다. 10조에서는 한국어를 약간 할 수 있는 대학생 선생님 BIINO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는 CHEMU가 우리조 대학생 선생님이다. 일본친구들은 2명, 러시아 친구는 1명, 중국 친구도 1

명이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다. 그런데 대학생 선생님들께서 잘 얘기해주시고 한국어도 약간 할 수 있으니까 정이 엄청 빨리 들기 시작했다. 제일 처음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뷔페식처럼 골라먹는 곳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운동회도 했다. 먼저 티-셔츠 색깔을 고라야 하는데 거의 다 노란색을 하고 싶어 해서 노란색을 골라서 노란색 티-셔츠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름도 썼다. 서로서로 그림을 그려줬다. 중국 친구 QANG LANG이 그림을 제일 잘 그린 것 같다. 운동회에서는 단어 몸으로 전달하기와 큰 바지에 두 명이 들어가서 빨리 뛰기, 의자 뺏기를 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오늘 밤에 배가 아팠다. 선생님께서는 내가 일본 물이나 쌀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웬지 공항에서 카레 고로케 소화제를 먹고 괜챿아졌다. 또 체육관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다. 우리 한국 친구들이 모르는 하바다케 노래와 춤을 계속 했다. 재미있었다. 비록 밖에선 못했지만 재미있었다! 목욕탕에서 씻고 방에 가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침대에서 자는 러시아 친구 LANA라는 애가 SUSHI R0라는 9조 대학생 오빠를 좋아한다고 했다. 나는 누군지 몰라서 그냥 알았다고 축하한다고 하고 잘 준비를 했다. 9시 반에 자야 하지만 나는 너무 더워서 잠이 아예 오지가 않았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대학생 선생님께서 잘 동안 나는 계속 깨어있었다.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는 하루였다.

다. 3일차(8. 23)

오늘의 일정은 각 도시 소개, 야외 밥 짓기, 그룹별 응원동작 만들기, 천체 관측을 했다. 먼저 각 도시 소개 할 때 나는 울산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대사를 읽었다. 고래박물관과 천전리각석을 소개했다. 각 도시 소개가 끝나고 야외에서 밥 짓기를 하러갔다. 우리 조는 일본 국을 끓이는 것이었다. 곤약과 당근, 무, 파, 양파, 등을 썰어서 끓이면 된다. 물론 어떤 것도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나도 보지 못했다. 아마 된장 같은 것들을 넣었을 것이다. 나는 당근, 무, 양파, 파를 썰고 우리 접시와 수저를 세척하는 역할이다. 당근, 무, 양파, 파 썰는 것은 쉬웠다. 또 씻는 것도 금방 씻었다.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또 아팠다. 소화제와 물을 먹었는데 더 아팠다. 추 현주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수돗물과 쌀이 내 몸에 맞지가 않아서라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시리얼이나 주스, 빵 같은 가볍고 수돗물과 일본 쌀이 안 들어가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한참 동안 배가 아팠다가 괜챿아졌을 때 쯤 돌아와서 체육관에서 그룹별 응원동작을 만든다고 했다. 조금 창피했다. 맨 마지막 동장이 너무 징글징글해가지고. 그리고 천체 관측을 하러 갔다. 천체관측은 하바다케 사진작가 와타비 상이 20년 동안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다.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직접 보러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말 신기했다. 불 끄고 동영상을 보니까 잠이 쏟아져 내렸지만 참고 끝까지 지켜봤다. 너무 피곤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니까 슬프게도 잠이 다 깨버렸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행복하게 잤다.

라. 4일차(8. 24)

오늘의 일정은 요코에서 다이니치 공장 견학하고 니가타로 이동해서 홈스테이 가정으로 갔다. 먼저 다이니치 공장 견학 갈 때 차 안에서 러시아 친구 LANA가 좋아하는 SUSHI R0를 알게 되었다. SUSHI R0는 한국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착했다. 그래서 러시아 친구 LANA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이니치 공업은 난방 기구를 만드는 곳이라고 했다. 먼저 나라 끼리 밥을 먹고 나라끼리 설명을 들었다. 빈 스케 상이라는 사람이 다이니치 공업을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이 구경하러 갔다고 했다. 빈 스케 상은 다이니치 공업에서 구경을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우리는 다이니치 공업에서 구경을 다 한 다음 홈스테이 가정으로 이동했다. 나는 대학생 선생님께서 은세와 같이 우리 10조 시라는 1살 어린 동생 집에 간다고 했다. 나와 은세는 곤약 젤리가 사고 싶어서 마트에서 엄청 골랐다. 그런데 시의 어머니께서 다 사주셨다. 그래서 조금 놀랐다. 그리고 시의 집에는 만화책과 인형이 엄청 많았고 닌텐도 WE와 강아지도 있었다. 먼저 우리는 집 소개를 받고 닌텐도도 하고 강아지와 놀아주기도 했다. 그런데 미우미라는 일본 친구도 홈스테이를 같이 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짐 나누고 씻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 저녁 밥을 먹고 게임도 하면서 놀았다. 밤에는 불꽃놀이도 했다. 그런데 내가 불꽃놀이를 하면서 불꽃이 튀어서 내 신발이 조금 많이 닳다. 불꽃놀이를 끝내고 샤워도 다 하고 목이 말라서 사이다도 한 병씩 마시고 잘 준비를 했다. 잘 때는 은세가 자고 싶어 하던 다다미 방에서 잠을 잤다. 정말 잠이 잘 왔다. 그리고 배도 안 아픈 하루였다. 하지만 대학생 선생님들이 보고 싶었다.

마. 5일차(8. 25)

오늘의 일정은 4시까지 홈스테이 가정에서 아쿠아리움을 가고 호-하타 소년센터 집합을 해서 일본 문화를 배우는 체험을 했다. 먼저 홈스테이에서는 7시 21분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시의 아버지가 오셨다. 어제는 아버지가 소방관이셔서 늦게 까지 일하셨다. 그래서 아침에 오셨다. 그리고 미우미, 나, 은세, 시는 시의 엄마가 먼저 아쿠아리움을 데려가서 기념품도 사고 동물들 구경도 했다. 그런데 야외에 꽃이 있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기침했다. 그리고 레스토랑도 갔는데 알고 보니 일본 뷔페였다. 음식이 다 맛있었고 시설도 되게 괜챿았다. 홈스테이에서 너무 좋게 대해줘서 나와 은세는 너무 복 받은 것 같았다. 또 일본 백화점도 갔다. 백화점에서는 스티치 물품을 많이 샀다. 스티치 손수건, 스티치 야광스티커, 스티치 샴프 등 또 일본 장난감도 사주셨다. 너무 좋았다. 홈스테이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다. 4시가 거의 돼서 오-하타 소년센터에 다시 왔다. 이젠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했다. 저녁식사를 먹고 다도, 서예, 일본 전통 유카타 옷입기, 주소 교환 등을 했다. 서예는 내 이름을 일본어로 쓰는 것을 했다. 두 번째는 유카타를 입고 다도를 했다. 9조 친구들과 함께 했다.

다도 할 때 일본 녹차 같은 것과 이상한 젤리를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너무 맛이 없었다. 그래도 참고 먹고 행사가 끝이 났다. 그 다음 씻고 자러 갔다. 근데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좋은 하루였다.

바. 6일차(8. 26)

오늘의 일정은 어린이회의를 하고 니가타 시내 산책도 하고 송별회를 하는 날이다. 먼저 어린이회의는 니가타의 어떤 빌딩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했다. 조금 창피했다. 왜냐하면 대학생 선생님들이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하바다케 춤을 쳤다. 그리고 8월 23일에 응원 동작 만든 것을 했다... 어린이 회의에서는 나와 박시우 오빠가 선서를 하고 박은세와 최우승이 울산을 대표하는 것을 대본을 보고 말을 했다. 그 다음 니가타 시내를 산책했다. 먼저 빵을 골라서 밥 먹고 니가타 공원과 먹을 것을 사러 갔다. 먹을 것은 일본 설탕 과자였다. 그리고 다시 오-하타 소년센터로 와서 마지막 프로그램인 송별회를 했다. 너무 슬펐다. 조금 춤 추다가 서로 끌어안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BINNO와 CHEMU와 SUSHI RO와 DO-NA가 너무 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물론 나도 많이 울었다.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 이라는 것이 너무 슬펐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다. 대학생 선생님들도 거의 다 울었다. 씻을 때도 진짜 슬프게 씻었고 잘 때도 진짜 슬프게 잤다. 그리고 헤어지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일 아침이 오기가 싫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전화번호 교환 한 것으로 꼭 연락할 것이다. 정말 재밌었지만 슬프고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지기 싫었던 하루였다.

사. 7일차(8. 27)

오늘의 일정은 6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씻고 아침식사를 먹고 바로 갔다. 원래는 더 늦게 까지 있어야 하는데 비행기가 빨리 출발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갔다. 나는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침식사만 하고 다른 활동은 못하고 갔다. 많이 슬펐다. 한국 친구들과 일본 니가타 공항 면세점에서 일본 우동과 감자칩도 샀다. 비행기 1시간 55분을 타고 KTX를 타러 갔다. 그런데 KTX를 타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어도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유성용 선생님께서 밥을 같이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간식을 주고 밥은 알아서 먹을 것인가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간식을 사기로 했다. 간식은 곤약 젤리와 일본 나이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점병 같은 것이었다. 간식을 득템해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사진도 조금 찍고 햄버거도 먹고, 진격의 거인 만화도 샀다. 그리고 남희와 은세와 계속 놀고 편의점 쇼핑도 했다. KTX에서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을 보고 폰도 봤다. 정말 재미있었다. 하지만 BINNO와 다른 대학생 선생님들과 다른나라 친구들이 보고 싶었다. KTX에서 2시간 반 동안 진격의 거인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간식도 사먹었

다. 나와 남희는 맛밤과 쥐포같은 것을 사서 같이 나눠 먹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에 도착했다. 그래서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아직도 BINNO와 대학생 선생님들이 보고싶지만 언젠가는 볼 것이라고 믿고, 하바다케 21을 즐거운 마음으로 종료한다. 오늘은 행복하지만 그리운 하루였다.

5. 삼신초등학교 5학년 노남희

가. 1일차(8.21)

드디어 니가타로 가는 날이다. 11시까지 KTX역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다. 모두 모이니 일본으로 간다는 것이 실감나고 엄청 기대되었다. 출발 전에 역에서 하바다케 21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12시 23분에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다. 나는 소현이와 같이 앉아서 어머니들이 준비해주신 김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출발한지 두 시간이 넘어가니 살짝 지루하기도 했다. 기차는 인천공항에 바로 도착했다. 우리가 탈 비행기는 저녁6시 45분 대한항공 비행기였다. 비행기를 타기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나와 소현이는 면세점 구경도 하고, 맛있는 카레로케도 먹었다. 그런데 카레로케가 살짝 덜 익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괜찮았는데 소현이가 그걸 먹고 배탈이 나서 비행기에서 토하고 많이 힘들어했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도 무사히 우리는 니가타에 도착했다.

막상 니가타에 도착하니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시간은 밤 8시 30분 정도였다. 이미 밖은 아주 캄캄했다. 하바다케 21 관계자분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공항에서 또 기념 촬영을 했다. 공항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하바다케 21 행사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웬지 일본에서 한국어를 보니 반갑게 느껴졌다. 니가타 공항은 내가 이때까지 가보았던 공항중에 가장 작았다. 우리를 마중 나오신 분들께서 승용차로 우리를 오하타 소년센터로 데려다 주셨다. 우리는 나누어서 승용차에 타고 일본 방거리를 달렸다.

오하타 소년센터에서 나는 소현이, 은세, 추현주선생님과 같은 방을 썼다. 2층 침대가 4개나 있는 큰 방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엄마한테 잘 도착했다고 연락한 다음 친구들과 조금 놀았다. 니가타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힘이 들었다. 나는 너무 피곤했지만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일찍 자지 않았다. 내일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해서 자기 전에 일정표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내일이 정말 기대된다.

나. 2일차(8.22)

나는 6시 30분에 일어나서 방 정리를 하고 1층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샌드위치랑 우유 정도의 간단한 식사였다. 나는 아침을 잘 먹지 않는 편인데 여기서는 너무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묘코시에 있는 국립 묘코 소년 자

연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오하타 소년센터에서 두시간정도 걸렸다.

요코 소년 자연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를 나누고 그룹별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6조였는데 우리 조에는 일본인 대학생 자스, 모모루도와 내 또래인 미나미, 메구미, 다이아나, 판유향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일본친구, 중국친구, 러시아친구들은 우리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우리 한국친구들은 모두 다른 조가 되었다. 일본 친구들은 낯설지가 않고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2층에 올라가서 조별로 식사를 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 어색했지만 밥이 너무 맛있었다.

식사 후 운동회를 한다고 해서 체육관으로 모였다. 운동회 시작 전에 티셔츠 만들기를 했는데 우리 조는 파란티셔츠였다. 나는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 티셔츠에 이름을 써달라고 했다. 여러 친구들의 이름이 쓰인 티셔츠는 기념일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조는 파란티셔츠의 파란 팀이었는데 2등을 했다.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운동회 때 했던 게임들은 내가 예전에 한번쯤은 해 봤던 것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게임을 하고 논다는 것이 신기했다. 운동회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러시아의 다이아나랑 친해진 것이다.

운동회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기위해 2층 식당으로 갔다. 뷔페식의 일본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완전 일본식의 음식들이었지만 나는 정말 맛있었다. 다들 아주 조금씩만 먹어서 많이 먹기가 민망했다.

식사 후에 나라별 장기자랑을 했다. 우리는 준비해간 새천년체조와 붐바스틱 댄스를 보여주고, 다른 나라의 장기자랑을 보았다. 다른 나라 친구들은 모두 노래를 준비했는데 우리만 몸으로 하는 동작과 춤을 준비해가서 반응이 좋았다. 우리가 장기자랑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춤을 추기도 했고 박수도 많이 받았다. 정말 재미있었다. 준비기간이 짧아서 걱정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뻐했다. 마지막 일정한 캠프파이어는 날씨가 좋지 않아 취소되었다. 그 대신 체육관에서 촛불을 켜고 다 같이 둥글게 자리를 잡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한국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떨어져 자는 첫날밤이 되었다. 우리조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대학생 언니 두 명마저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나는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누웠다.

다. 3일차(8. 23)

오늘은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야외 밥 짓기를 하는 날이다. 10시 30분쯤 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외 밥 짓기 할 때 장작에 불을 지퍼서 했는데 많이 덥지는 않았다. 니가타의 날씨가 울산 보다 시원해서 다행이었다. 반찬은 카레를 만들었다. 우리가 어른들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한 카레는 정말 맛있었다. 다른 팀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었다. 식사 후에 우리는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양의 설거지를 한건 처음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야외 밥 짓기 행사 후에 우리팀은 30분동안 구호를 만들었다. 러시아 친구가 구호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적극적인 러시아 친구 다이아나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팀의 구호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표현하는 응원 동작이었는데 구호 발표 후에 박수를 많이 받았다. 모두다 다이아나 덕분이다.

일정표에는 식사 후 별보기 일정이 있었는데 어체처럼 날씨가 좋지 않아 또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길을 따라 조금 걸으니 와타베상이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왔다. 그곳에서 와타베상의 사진과 영상을 봤다. 직접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영상도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낮에 야외에서 활동이 많아서 피곤했기 때문에 영상을 볼 때 엄청 좋았다. 옆에 보니 다른 친구들도 살짝씩 졸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와 씻고 엄마와 통화하는데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 와타베상 영상 볼 때는 엄청 즐겼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다.

라. 4일차(8. 24)

요코에서 다시 니가타로 가는 날이다. 요코 소년 자연의 집은 완전 산속에 있었는데 곰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정말 낯설게 느껴져서 니가타로 다시 가는 것이 좋았다. 아침 식사 후에 다이치 공장으로 바로 갔다. 다이치 공장은 히터를 만드는 곳이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도시락을 먼저 먹은 다음 공장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공장 안이 너무 더워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았다. 공장 견학은 처음이어서 신기했다. 나는 엄마한테 보여줄 팜플렛을 챙기고 공장을 나왔다.

공장 견학 후에 홈스테이 가족을 만났다. 소현이와 은세는 같은 집으로 갔는데 나만 다른 집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다. 나는 우리조인 메구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다고 했다. 메구미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메구미의 엄마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저녁에 불꽃놀이를 위해서 폭죽을 사러 마트로 바로 갔다. 마트에서 폭죽을 같이 고르고 나를 위해 메구미의 엄마는 선물도 사주셨다. 우리는 또다시 차를 타고 메구미의 집으로 향했다. 메구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의 첫 느낌은 집이 많이 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집들은 좁고, 차도 작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본인들이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다. 일본인의 집에 온 것이 처음이어서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 메구미와 메구미의 엄마는 영어를 전혀 못해서 아예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메구미 언니가 영어를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메구미 언니인 아미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서울에 놀러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아미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저녁식사는 시우오빠의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먹었다. 메뉴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이 있었다. 또다시 먹고 싶다. 저녁 먹고 바닷가로 가서 마트에서 산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했다. 정말 재미있었다. 바닷가에서 실컷 놀고 메구미의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유튜브도 보고 종이접기도 하면서 놀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아주 많이 났지만 오늘도 즐거운 하루 였다.

마. 5일차(8. 25)

아침에 일어나니 메구미의 집이어서 살짝 적응이 안됐다. 메구미의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식사를 준비해주셨다. 아주 많은 음식을 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소된장국이었다. 미소시루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고, 일본 여행 때도 많이 먹어봤지만 메구미엄마의 미소시루는 정말 정말 맛있었다. 아침 먹고 메구미, 아미언니와 함께 부채만들기와 735게임을 했다. 그리고 메구미 엄마의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니가타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가서 니가타 시내 전망을 보며 맛있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은 니가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31층이라고 했다. 속으로 ‘우리아파트는 43층까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말로 하진 않았다. 그리고 니가타 쌀로 만든 과자 만들기 체험센터에 가서 내 얼굴보다 큰 과자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했다. 쇠를 불에 달궈서 과자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곧 아미언니와 헤어져야 해서 아쉬웠다. 아미언니는 내 카톡에 자기를 추가시켜주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홈스테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오하타 소년센터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지각을 했다.

오하타 소년센터로 돌아왔더니 축제가 시작되었다. 축제에서 키모노인지 유카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차 마시는 법을 배웠다. 차를 그냥 마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의를 갖추서 동작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차가 정말 마시기 힘들 정도로 맛이 없었다. 같이 준 쥘리도 신기한 모양이었지만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었다. 축제에서 서예도 했는데 나는 내 이름을 한 장 쓰고, ‘니카타’ 라고 한 장 써보고, ‘하바다케’ 도 일본어로 한번 써 보았다. 또 서로 연락처를 적은 추억책자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조는 각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6장씩 적어서 나누어 가졌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상하게 저녁에 숙이 안 좋아서 저녁식사를 받고도 먹지 못했다. 정말 맛있어보이는 음식이었는데 못 먹어서 너무 아쉽다.

바. 6일차(8. 26)

집에서는 아침을 잘 먹지 않았는데 일본에 와서 매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니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고 든든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어린이 회의를 하기 위해 이동했다. 어린이 회의 때 우리는 계단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했다. 강당보다 앞이 잘 보여서 좋았다. 홈스테이 때 정말 한국말이 하고 싶었는데 한국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한국말을 하니 좋았다.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우리 6조 친구들과 니가타 시내구경을 갔다.

시내에는 일본이 선생님 두 분과 우리조의 대학생 언니 두 명 그리고 우리조원들만 갔다. 시내구경 전에 편의점에 들어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멘다이크 삼각김밥을 먹었다. 멘다이크는 명란인데 언제 멘다이크 삼각김밥은 언제

먹어도 맛이 있었다. 우리는 ‘스누피파티’ 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스누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었다. 친구들과 많은 사진을 찍고 구경도 많이 했다. 그리고 타워 같은 곳도 가 보았다. 그리고 신기한 아이스크림도 사먹었다. 이름은 파피코였는데 우리나라 빠삐코 처럼 생긴 아이스크림 두 개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메구미와 나는 하나로 나누어 먹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하타 소년센터로 돌아와서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일본에서 마지막 일정인 송별회를 했다. 송별회에서 이때까지 배웠던 노래를 부르고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처음엔 어색했던 친구들이었는데 막상 헤어진다고 인사를 나누니 너무나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마지막 밤에 우리 조의 친구들과 같이 자서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애기도 나누고 같이 놀면서 마지막 날 밤을 즐겁게 보냈다. 마지막 날 나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 7일차(8. 27)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찍 밥을 먹고 우리 한국팀만 짐을 가지고 먼저 니가타를 출발했다. 공항에서 잠깐 쇼핑을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탔다. 대한항공 기내식은 짬뽕 비슷한 한국음식이었다. 오랜만에 한국음식을 보니 반가웠다. 금방 서울에 도착했지만 울산까지 갈 생각을 하니 멀게 느껴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또 KTX를 갈아타고 울산으로 가야했다. 선생님이 기차에서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소현이와 나는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래도 가는 길이 너무나너무 멀었다. 밤이 다 되어서야 울산역에 도착했다. 울산역에는 우리가족과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촌동생들까지 마중 나왔다. 가족들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받아온 선물과 내가 사온 선물들을 바로 꺼내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울산역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헤어졌다.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갔다 오고 보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집에 오자마자 홈스테이 때 만났던 아미언니에게서 잘 도착했냐는 카톡이 왔다. 카톡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메구미랑 아미언니도 우리집에 놀러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한국음식도 먹고 내가 정말 잘 해줄 텐데.. 말이 통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일본에서 오기 직전에 아미언니가 나를 만나러 왔었는데 나를 못 만나서 유성용선생님께 내 선물을 전해 주었다. 선물을 받아보니 우리가 홈스테이 때 같이 찍은 사진앨범과 니가타 쌀로 만든 과자, 일본전통 색지가 있었다. 너무 고맙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다.

일본에 있는 일주일 동안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처음에 낯설어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이렇게 집에 돌아오니 니가타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한 번 더 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선생님께서 또 3년 후에 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때 꼭 다시 방문해 보고 싶다.

6. 남산초등학교 4학년 박은세

가. 1일차(8.21)

일본 가는 날이라서 마음이 설렸다. ktx 기차를 놓칠까봐 걱정이 되어 일찍 일어났다. 처음 가보는 일본이라 어떤 나라인지 너무 궁금했다. 기본 인사말을 외웠지만 익숙하지가 않았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언니들에게 일본말을 배웠다. 오와이요 고자이마쓰(안녕하세요?), 아리가또(고마워), 쓰미마생(죄송합니다.) 하이(예), 이이에(아니요)는 꼭 알아야 하고 특히, 예의를 중요시 하는 일본이라서 밥 먹기 전 이따따까마쓰(잘먹겠습니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외웠다. 울산시 학생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캠프라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와 울산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장기자랑때 사물놀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무겁지만 장구를 가지고 갔다.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과 같이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캠프라서 더욱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를 타고 저녁 늦게 일본 니이가타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사람들이 배너를 들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본말이 들리고 배너를 보는 순간 일본에 도착한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오히타 소년센터로 가서 짐을 풀었다. 내일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기대된다.

나. 2일차(8.22)

러시아, 중국, 한국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요코소년자연의 집에 모였다. 우리 팀에는 4개의 나라가 모두 다 있었다. 러시아 2명, 중국 1명, 한국 1명으로 우리 조가 구성되었다. 한국 사람은 나 혼자라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걱정이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였지만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손짓과 몸짓, 짧은 영어 단어로 해결되었다. 세계 공통 언어는 몸짓 같았다.

장기자랑을 할 때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했다. 우리는 일본 가기 전에 새천년 건강 체조와 붐바스틱이라는 춤을 연습했다. 난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 집에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다. 붐바스틱이 웃긴 춤인데 다른 나라 친구들도 웃기게 보이는지 궁금했다. 사물놀이 보여준다고 장구를 준비해 갔지만 시간이 없어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여러나라 친구들과 함께 춤도 같이 추고 촛불의식을 하니 다른 친구들과 친해진 기분이 들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3일차(8. 23)

여기는 아침 일찍 깨운다. 6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 괴롭다. 한국에서는 8시가 되어야 일어나는데 여기는 자기 주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불도 개고 방정리도 해야

한다. 중국 친구들도 모두 6시전에 일어났다. 모두 빠르다. 집과 다르다. 일본에서는 모두 이렇게 스스로 하는구나. 나는 안그러는데... 반성이 되어 집에서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밖에서 미소된장, 밥, 카레라이스 만들기를 했다. 여러나라 친구들이 말이 잘 안통하지만 서로 몸짓과 영어를 하면서 밥을 같이 만들었다. 우리가 만든 밥이라서 정말 맛있었다. 사실 중국 친구들도 카레라이스를 먹을까 싶어 궁금했는데 정말 잘 먹었다. 카레는 인도음식이지만 전 세계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다. 이때 한국음식을 만들어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빔밥은 너무 귀찮은 것 같고 떡국과 송편이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 같았다.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으니 외국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 것 같았다. 역시, 음식은 나눠 먹어야 친해지는 것 같다.

라. 4일차(8. 24)

오늘은 다이니찌 공장에 방문한 날이다. 난방기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많은 기계들이 난방기를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았다.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 나중에는 사람보다는 로봇이 공장에서 일할 것 같았다.

오늘은 홈스테이로 가는 날이다. 2층으로 된 주택이다. 일본집은 어떻게 해 놓았을까 기대가 많이 되었다. 홈스테이 집에는 일본여자 친구가 있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해 줬다. 오빠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일본친구 한명과 소현이 언니, 나 이렇게 3명이 같은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저녁에 돈까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일본 전통 다다미방에서 잤는데 바닥이 신기했다. 돗자리 비슷한데 방에 다 깔려져있고 좋은 향도 났다. 홈스테이 엄마께서 빨래 밀린 것 빨아 주셔서 너무 고맙웠다.

마. 5일차(8. 25)

홈스테이에서 8시에 일어났다. 오랜만에 늦잠 잤다.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수족관에 가서 펭귄과 많은 물고기를 봤다. 그리고 쇼핑을 하러 대형마트에 갔다. 사고 싶은 것이 많았다. 언니가 샤프를 사오라고 해서 사고 곤약젤리와 일본 과자를 샀다. 일본에서 직접 사니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 비싸지 않았다. 세계과자 전문점에서 곤약젤리 3개 살 돈으로 곤약젤리를 봉지채로 살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다. 홈스테이 엄마께서 놀랍게도 계산할 때 그냥 사주셨다. 나는 내 돈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니 미안하고도 고맙웠다. 홈스테이 엄마께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몰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쓰' 라고 여러 번 말했다.

언니가 좋아하는 샤프와 곤약젤리를 사서 너무나 뿌듯했다. 우리는 홈스테이를 떠나서 다시 오히타 소년센터로 갔다.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모노를 입고 차를 마셨다. 녹차 비슷한 맛이 나서 땀었지만 맛이 좋았다. 기모노를 입으니 모두 일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기모

노도 한복처럼 예뻐다.

바. 6일차(8. 26)

시간이 자꾸 지나간다. 벌써 금요일이다. 오늘은 니가타 시내를 둘러 보았다. 도시라서 그런지 울산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캠프의 마지막 날이다. 아쉽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 언니도 보고 싶지만 너무나 재미있어서 일본에 더 있고 싶다. 특히, 나는 우리 조의

대학생 선생님인 핀수케 비노 언니가 너무 좋다. 언니는 한국에서 1년동안 유학해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안다. 송별회 때 언니랑 안고 작별인사를 할 때 눈물이 나왔다. 우리 조 러시아, 중국, 일본 친구들과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밥도 같이 먹고 춤도 추고, 활동을 같이 하니 헤어지기 싫었다.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여러 나라 친구들이 많아 너무나 재미있어서 또 오고 싶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간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사. 7일차(8. 27)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떠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데 난 여전히 친구들을 떠나는 것이 섭섭했다. 일주일이지만 정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비행기 안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주일간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니 꿈이 아니고 모두 내 머리 속에 추억으로 저장되어 있다. 한국을 대표해서 간 것이 자랑스럽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 주고 싶다. 특히, 핀수케 비노 언니가 보고 싶어서 일본에 또 가고 싶다.

【활동사진】

